

ELLE

<엘르>가 선정한 2020년 올해의 여성 2

안동선 기자 | 2020. 12. 15



최지원, 세 사람의 대화, 2019.

젊은 회화의 물결

최지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작가였다. 전시장으로 들어가자 불투명한 흰색 눈물 줄기가 쏟아져나오는 여인의 옆얼굴, 핑크 풍선과 기념촬영을 하는 듯한 두 여자 등 아리송한 서사의 화면이 펼쳐졌다. 도자기 인형 같은 여자들은 어떤 존재이며, 얼굴 부분은 붓 터치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맨질하고 나머지 부분은 속속 대범하게 표현한 대비는 의도적인지, 갖가지 호기심이 일었다. 갤러리 관계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최지원 작가가 ‘아름답고 찬란한 이미지로 각인된 채 익명의 관계망에서 고립된 일상을 영위하는’ 오늘날의 청춘, 동시대의 정서를 회화로 기록한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회화 작업을 하는 밀레니얼 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속속 눈에 들어왔다. 만취 상태의 여성을 그린 그림으로 통쾌한 미감을 선사하는 이은새, 강렬한 컬러의 색과 면으로 회화의 운동성과 경계를 탐구하는 배혜음, ‘디지털 이미지의 가벼움과 그것이 지닌 공허함에 대한 멜랑콜리적 감수성’을 담은 정희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휘황한 작품 속에서 인간의 손에서 탄생하는 회화의 가치를 대변하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이 계속되길 바라고 응원한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동선

[출처] ELLE (<https://www.elle.co.kr/article/50695>)